農村定住生活圈 開發을 위한 農村地域의 社會生態的 特性에 관한 硏究

김수욱, 류태영, 오성삼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교육학과)

A Study on the Socio-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 for Rural Human Settlement Planning

Kim Soo-Wook, You Tae-Yeung, Oh Sung-Sam
*Dept. of Agricultural Education, College of Agriculture, Konkuk University, Seoul 133-701, Korea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① to review the concepts of rural and urban area, ② to identify the hierarchy of rural human settlement, ③ to search for the socio-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rural society, ④ to find out the public facilities in rural area, and ⑤ to suggest political implications for integrated rural regional development.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

① The average population of small cities which had the functions of rural center was 66,444 persons and the average rate of farm population were 16 percent. Gun-office small cities had more socio-ecomic functions of rural center than non Gun-office small cities. However, the living conditions and the development potentials of the latters were better than the formers.

② The average mumber of Eup in Gun-area was 1.3. The average population of Eup was 20,034. The average household of Eup was 5,266. Majority of Eup had less than 20,000 population because of rural-urban migration in industrializing period.

③ Though almost of Eups had the function of rural center, about 60% of Eups could be clasified into rural in terms of population size and structure of industry.

④ Infrastructure and living conditions of Eup were not developed well, but housing supply rate were relatively high. Especially, non Gun-office Eups showed worse regional development than Gun-office Eups.

⑤ Myon, the hiterland, had the average population of 5,879, and average area of 63.2km^2. Further research should be followed to review that Myon is a proper unit of rural human settlement planning.

⑥ Most of Myons had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society which had over 70% of farm population rate. One Myon had 24 village and each village held 68 households and 256 persons on the average.

⑦ Myon area had poor public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such as high school, medical clinic and hospital, storehouse for agricultural commodities, cultural and physical facilities and transportation system.

The main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

① In the planning of small city development the political emphasis should be put on the Gun-office small cities for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② Policies for maintenance and/or growth of population and improvement of infrastructure and living conditions should be stressed in the regional development planning of Eup which has the essential functions for rural center.

③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Gun-office Eups and non Gun-office Eups, resources and budget should be allocated equitably in the integrated Gun area development planning.

④ It can be suggested that Gun area is more suitable for a unit of rural human settlement planning area to demarcate as a self-sufficient human settlement area.

⑤ Infrastructure, public facilities and transportation system should be developed rapidly to improve the QOL of Myon inhabitants.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통한 경제개발을 이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채택한 주요 전략은 산업개발 측면에서는 공업위주의 불균형 성장론, 지역개발의 측면에서는 성장거점개발론에 입각한 공업 및 대도시 중심의 편향적인 개발전략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극대화와 공업화를 위해서는 농업·농촌경제 부문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지배적으로 통용되었으며[1] 농업이 지니는 중요한 기능 즉, 식량안보의 기능, 공공재 생산의 기능, 국민경제에 대한 보완적 기능, 한국 농업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능 등은 무시되어 왔다.[2]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촌·농업부문은 도시·공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낙후되어 왔다. 최근에 지역간·산업간 불균형발전을 더 이상 방치하면 우리나라가 선진산업사회로 이행되어 나아가기 어렵다는 인식아래 농어촌 종합개발에 착수, 집중 투자할 계획을 부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못지않게 농촌생활환경의 개선도 농촌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므로 농촌의 정주체계확립과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농촌정주생활권 단위의 농촌지역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농촌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농촌의 정확한 사회생태적 특성과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을 파악한 후 농촌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농촌의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은 비교적 잘 조사, 연구되고 있으나 사회생태적인 특성에 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농촌정주체계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못하며, 농촌지역에 대한 사회생태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농촌정주생활권 개발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시점에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① 산업화 사회에서의 농촌지역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재조명하며, ② 농촌정주체계를 고찰하며, ③ 농촌지역의 사회생태적 특성을 규명하고, ④ 농촌정주체계에 따른 생활편익시설의 상태를 파악함으로서, ⑤ 효율적인 농촌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농촌의 개념

농촌은 도시와 대조가 되는 말로서 보통 시골 또는 농촌지역사회, 농촌공동체라는 넓은 의미로, 가옥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하는 토지·수로·도로·공지 기타의 정주에 수반되는 제요소를 포함하는 총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농사를 짓는 농업촌락이란 좁은 의미로도 쓰인다. 농촌은 농업을 위주로 하는 취락집단 혹은 촌락을 의미한다. 촌락은 우리말의 마을(물)이다. 일본어로 촌락은 ムラ(村)라고 하는데 ムラ의 의미는 ムレ(郡)이며 군집 혹은 군거를 의미한다. 취락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영어는

Settlement인데 그 어원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토착 정주를 의미하며, 정주되는 생활장소로서의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3]

농촌이 주로 농사를 짓고 하나의 단위지역을 이루는 농업촌락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농촌사회의 구조를 밝히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산업으로서의 영농(farming) 또는 농업에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며 사는 농민들의 사회적 특성을 파악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4]

Sanders[5]는 농촌과 도시와의 개념 차이를 다음의 세 가지 접근방법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① 이분적 접근방법:농촌과 도시를 두개의 확연히 구분되는 지역집단으로 구분한다. 농촌과 도시는 상호폐쇄적이어서 독자적 사회체계로 규정하여 각기 다른 사회규범, 가치에 의해 움직인다고 보았다.

② 연속적 접근방법:농촌과 도시를 별개의 세계로 구분하려 하지는 않으나 각각의 공간적·지리적 여건이 이들 간에 사회적·문화적으로 상대적인 차이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시각에서 볼 때, 농촌은 정주형태의 특성-적은 인구, 인구밀도, 인구구성의 동질성-과 더불어 특유의 공동사회적인 사회관계와 문화의 성격을 내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③ 공생적 접근방법:농촌과 도시를 상호유기적인 관계로 보려는 것으로 상호관계를 강조하는 공생적 접근은 생태학적 시각과 정치경제학적 시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생태학적 시각은 교통과 통신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농촌과 도시간의 공간적 접근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는 농촌과 도시를 사회적 분업의 공간적 표현이라고 본다.

〈표 1〉 농촌사회와 도시사회의 비교

구 분	농 촌 사 회	도 시 사 회
직업	농업중심	비농업적직업중심
환경	자연환경이 지배적	인공환경이 지배적
지역사회의 크기	비교적 작음	비교적 큼
인구밀도	낮음	높음
인구의 이질성	동질적	이질적
사회적 분화	단순한 구성	복잡, 다양한 구성
계층이동성	적음	많음
상호작용의 형태	1차적인 관계가 지배적	2차적인 관계가 지배적

Dewey[6]는 농촌과 도시의 특성의 차이를 ① 익명성 ② 분업 ③ 주민의 다양성 ④ 공식적 대인관계 ⑤ 지위의 외면적 상징의 수준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농촌은 이 다섯 가지 기준에서 비교적 낮은 정도의 사회 문화적 특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도시화의 가장 주요한 척도가 되는 인구변인이 빠져있기 때문에 위의 다섯 가지 변인만으로 도시와 농촌을 특징지우기는 어렵다.

Sorokin 과 Zimmerman[7]은 농촌사회와 도시사회를 다음 〈표 1〉과 같이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위와 같은 접근방법으로 농촌을 개념규정하기는 어렵다. 일본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인구밀도와 인구규모를 지표로 삼아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즉, 일정 구역 내에서 인구밀도가 1km²당 약 4,000명 이상인 지구가 인접하여 5,000명 이상의 인구를 갖는 지역을 인구조밀 지역(DID:densely intensive district)이라 하여 도시지역으로 보고 非DID지역을 농촌으로 규정한다.[8]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공간에서 도시를 뺀 나머지 지역을 농촌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시는 시부지역이며 농촌은 군부지역이다. 즉, 일정 행정구역의 인구가 50,000명 이상, 도심지의 인구비율이 60% 이상, 비농업인구가 60% 이상이면 시가 된다.[9]

UN 기준에 따르면 인구 20,000명 이상의 단위지역은 도시로 규정된다. 이 개념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많은 읍들이 도시에 포함된다.[10] 즉 읍을 도시에 편입시키면

순수한 농촌지역은 군 지역에서 읍을 제외한 면지역으로 볼 수 있다.[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 조사보고서에서는 행정단위에 의한 도시·농촌 구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5만 이상의 시부를 도시로, 군부를 농촌으로 나누고 있다. 그런데, 인구 2만~5만인 읍의 경우 대부분이 도시적인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12]

홍동식은 인구규모, 인구밀도, 직업유형을 기준으로 하는 농촌과 도시의 구분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들은 농촌과 도시의 개념적 구분에 매우 유용한 것들이나 우리나라에서 실증적인 분석은 시도되지 않았다.

2. 농촌지역의 정주체계

농촌정주체계(human settlement system)는 마을, 소도읍, 도시 등의 계층구조를 형성한다. 이와같은 정주계층은 그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과 자연적 환경 및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발전하는 역사적 산물이다. 농촌정주체계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적 발전과정을 갖는다.[13]

제1단계는 입지(location) 자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서 주로 초기의 자연환경적 여건에 따른 정주 패턴의 형성단계에 해당한다. 제2단계는 정주지(human settlements)간의 경쟁과 주요한 정주 구성요소들간의 내부 조정 등에 의한 발전단계이다. 제3단계는 자족적 농업단계를 지나서 취락(hamlet)과 규모가 큰 마을(village)들이 상업농가를 위한 서어비스 중심지로서 기능을 하는 단계이다. 산업화, 도시화로 우리나라 농촌지역 내부의 정주체계는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농촌지역의 중심지들은 교역 및 지역개발을 위한 자본투자의 초점으로서 농촌정주체계의 핵심요소(key element)로 발전하고 있다.[14] 농촌중심도시를 중심지로 하여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연결을 맺고 있는 배후지역을 통합한 인간정주생활의 기본적인 공간영역을 농촌정주생활권이라 하여 농촌지역개발의 범역으로 삼고 있다.

최양부 등은[15] 농촌정주생활권내의 정주체계를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으나 몇 지역의 실증적인 연구결과는 (표 2)와 같다. 즉 농촌지역의 특성에 따라 또는 농촌개발 관련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농촌지역내의 정주체계는 달리 나타난다.

(그림 1)의 농촌중심지는 농촌지역에서 도로, 교통의 결절기능, 농촌주민의 생활편익 서비스의 중심기능 및 농촌개발의 거점기능을 담당한다. 농촌정주생활권 내의 중심지는 인구규모, 중심기능 시설에 의한 기준, 배후지에 대한 영향권, 개발의 잠재력, 교통의 결절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16] 정주체계에 따라 생활편익시설을 배치하는 방법으로는 규범적 기준에 의한 방법과 임계인구에 의한 방법이 있다.[17]

규범적 기준으로는 ESCAP[18]이 제시한 것과 오세훈[19]의 연구결과 등이 있으며 임계인구에 의한 방법으로는 김태용[20]의 연구결과를 들 수 있으나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많은 실증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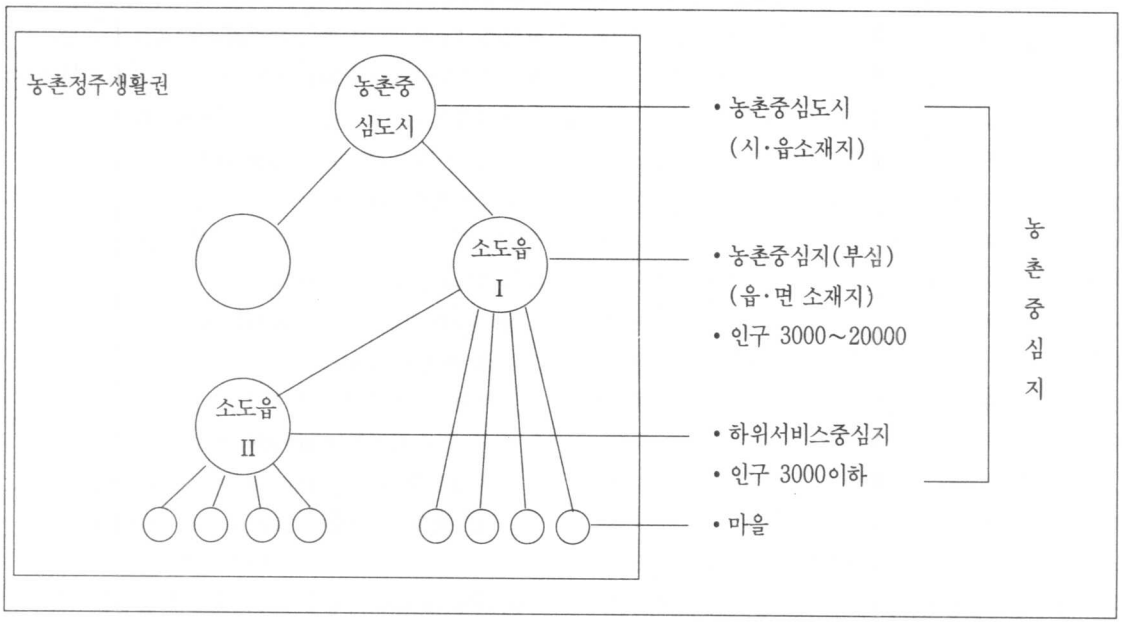
3. 농촌지역의 사회생태학적 관점

생태학이란 한마디로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생태학 연구는 효과적인 사회조직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하여 생태학의 원리를 인간사회에 적용해 사회학 이론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생태학 이론의 특성은 인간의 사회적 적응이 다른 생물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생태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사회생태학은 Robert Park에 의해 학문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그의 이론은 식물이나 동물세계에서 나타나는 생존경쟁과 생활상에 관련된 원리를 인간생활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인간사회의 생태학적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생물학적 원리를 가지고 경쟁, 지배, 계승, 분리, 동화의 개념을 도입하였다.[21]

Hawley[22]는 사회생태학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해 가는 과정과 그 유형에 초점을 둔 것이며 또한 이러한 적응방식의 차이가 바로 각 문화간의 차이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림 1) 농촌지역의 정주체계



〈표 2〉 농촌정주체계 설정기준 대비

지역	영월	서산	정읍	괴산	청송	강진	안성	고성
	정주생활권	정주생활권	정주생활권	정주생활권	정주생활권	정주생활권	정주생활권	정주생활권
정주생활권		기능분담권		정주권소권				
내의	정주소생활권	2차생활권	2차생활권		2차생활권			
정주체계		3차생활권		정주구대권		정주구	정주구	정주구
	정주협동권	2차생활권	1차생활권	정주구소권	1차생활권			
		1차생활권	기초생활권	거주구대권	기초생활권			
	정주기본생활권	기초생활권	단위부락	거주구소권	단위부락	마을	마을	마을
정주체계 계층	4계층	6계층	5계층	6계층	5계층	3계층	3계층	3계층

Duncan과 Schnore[23]는 사회생태계는 인구(population), 환경(environment), 기술문화 (technology), 사회조직(organization)의 네가지 큰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POET모델을 제시하였다. 인구는 생태학 분석의 기본단위로서 개념적으로 주어진 집합체이며 인구규모나 분포, 인구구성은 생태학적 복합체(ecological complex)안에서의 균형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환경은 집합체로서의 기본단위인 인구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리적, 사회적 외부조건이며 다른 지역사회도 여기에 해당한다. 사회조직은 인구가 생존을 위해 수행하는 기능과 활동의 집합체로서의 특정인구의 구성과 속성을 지칭한다. 기술문화는 인간이 환경에의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해 낸 모든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제도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Micklin[24]은 인간 공동체의 형성과정을 환경에 대한 적응으로 본 Hawley의 입장을 취하면서 첫째, 인간사회를 인구·조직·환경·기술의 복합적 체계로 보는 Duncan의 이론체계와 둘째, 인간사회에 있어서 조직형성의 기본 생계활동으로 보는 Gibbs와 Martin[25]의 입장과 셋째, White[26]의 문화적 상징과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반영하였으며, 넷째, 사회조직의 환경에 대한 적응 매커니즘으로 권력(power)과, 통제(control)를 첨가하여 적응이론(adaptation theory)을 제시하였다. Micklin은 인간생태학적 이론을 체계화시킴에 있어서 인간공동체 혹은 사회를 생태계의 부분체계로 보면서 Duncan의 생태학적 복합체계를 POET모델의 기틀로 삼고 있다.

Perez[27]는 지금까지의 인간생태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농촌생태학(rural ecology)이라는 이론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Perez 는 Hawley의 입장을 수용하였는데, 그는 농촌지역사회 생태체계의 관점에서 보아 분석에 필요한 다섯 종류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① 인구밀도(population density)

② 정주형태(settlement patterns)

③ 지역집단(locality groups):근린집단(neighborhoods), 지역공동체(communities)

④ 인간과 토지관계(man-land relation):
농업(agriculture)
비농업자원의 추출 및 사용
재생가능한자원(renewable resources)
재생불가능한자원(non-renewable resources)
휴양자원 및 수자원(recreational resources & water)

⑤ 과정(process):경쟁(competition), 갈등(conflict), 순응(accomodation), 동화 (assimilation).

심재웅[28]은 우리나라 농촌의 생태학적 요인을 농업구조요인, 농업생산요인, 농업소득요인, 도시화요인, 인구변동요인, 도시의 영향요인, 환경자원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생태학적 구조가 농업구조를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도시화, 산업화 등의 사회변동의 외부적 영향에 따라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표 3〉 조사대상지역

구 분		빈도(개)
농촌중심도시	군청소재지를 겸하고 있는 지방도시 및 대도시	20
	인구 5만－10만의 중심도시	28
	읍	180
배후지	면	353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지역의 선정

이 연구의 조사대상지역은 농촌중심도시와 배후지인 면으로 〈표 3〉와 같다. 농촌중심도시의 경우 제주도를 제외한 〈표 3〉의 기준에 해당되는 8개 도의 시와 읍을 모두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면의 경우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8개도에서 지역유형을 층화기준으로 하여 36개

군을 층화표집하고 36개 군에 속한 전체 면을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표4 참조)

지역유형은 1차산업에 대한 지역산업의 의존성 기준에 의한 지역유형구분을 근거로 구분하였다. 즉, 지역 총생산액에 대한 1차 산업(농림어업)의 비율(RA)에 따라 비농업지대(RA<38.1%), 준 비농업지대(38.2<RA<57.3%), 중간지대(57.3<RA<69.9%), 준 농업지대(69.9<RA<77.5%), 농업지대(RA>77.5%)로 구분하였다.[29]

〈표 4〉 조사대상 면지역

도	지대	군	면
경기도	비농업	이천군	신둔, 백사, 호법, 마장, 대월, 설성, 울, 모가
		양주군	주내, 남, 광적, 백석, 은현, 장흥
	준 비농업	여주군	가남, 강천, 금사, 능서, 대신, 북내, 산북, 점등, 흥천
	중간	연천군	군남, 신서, 중, 장남, 미산, 백학, 왕징, 청산
	준농업		
	농업		
강원도	비농업	삼척군	가곡, 근덕, 노곡, 미로, 신기, 하장
	준 비농업	양양군	강현, 서, 손양, 현남, 현북
	중간	평창군	대화, 도암, 미탄*, 방림, 봉평, 용평, 진부
	준농업	홍천군	남*, 내, 내촌, 동, 두촌, 북방, 서, 서석, 화촌
	농업		
충청북도	비농업	단양군	대장, 가고, 영춘, 어상천, 적성
	준 비농업	옥천군	군북, 군서, 동이, 안내, 안남, 이원, 청산, 청성
	중간	중원군	가금, 금가, 노은, 동량, 산천, 살미*, 주덕, 상모, 소태, 신니, 앙성, 엄정, 이류
	준농업		
	농업		
충청남도	비농업		
	준 비농업	부여군	구룡, 구암, 남, 내산, 석성, 세도, 옥산, 외산, 은산, 임천, 장암, 양화, 초촌, 중화, *홍산
	중간	홍성군	결성, 서부*, 은하, 장곡, 갈산, 구항, 금마*, 홍동, 홍북
	준농업	서산군	고북, 대산, 부석, 성연, 운산, 음암*, 인지, 지곡, 해미
	농업	당진군	고대, 대호지*, 면천*, 석문*, 송산*, 송학*, 순성*, 신평*, 우강*, 정미*
경상남도	비농업	양산군	동, 물금, 원동, 상북, 하북, 일광, 철마, 웅상*, 정관
	준 비농업	밀양군	부북, 상동, 산외, 산내, 단장, 상남, 초동, 무안, 청도
	중간	산청군	금서, 단성, 삼장, 생비량, 생초, 시천, 신등, 신안, 오부, 차황*
		창령군	개성, 고암, 길곡, 대지, 대합, 도천, 부곡, 성산, 영산, 유어, 이방, 장마
		함안군	군복, 대산, 법수, 산인, 여항, 칠북, 칠서, 칠원, 함안*

	준농업	의령군	가례, 궁유, 낙서, 대의, 봉수, 부림, 용덕, 유곡, 정곡,
	농업		지정, 칠곡, 화정
경상북도	비농업	달성군	가창*, 구지*, 논공*, 다사*, 옥포*, 유가*, 하빈*, 현풍*, 하원*
	준비농업	영일군	기계, 기북, 대보, 대송, 동해, 송라, 신광, 죽장, 지행, 청하
	중간	고령군	다산*, 개진*, 덕곡*, 쌍림*, 성산*, 우곡*, 운수*
	준농업	상주군	공검, 공성, 낙동, 내서, 모동, 모서, 사벌, 외남, 외서
			은척, 화서, 화북, 화동, 화남, 청리, 이안, 중동
	농업	영양군	석보, 수비, 일월, 입암, 청기
		예천군	감천, 개포, 보문, 상리, 용궁, 용문, 유천, 지보, 풍양, 하리, 호명
전라남도	비농업		
	준비농업	화순군	남, 능주, 도곡, 도암, 동, 동북, 북, 이서, 이양, 청풍, 춘양, 한천
	중간	장성군	남, 동화, 북이, 북일, 북하, 삼계, 삼서, 서삼, 지원, 황룡
		곡성군	겸, 고달, 목사동, 삼기, 석곡, 오곡, 오산, 옥과, 입죽곡
	준농업	해남군	계곡, 마산, 문애, 북일, 북평*, 산이, 삼산, 송지, 옥천, 현산*,
			화산, 화원, 황산
		장흥군	회진, 부산, 안양, 용산, 유치, 장동, 장평*
	농업		
전라남도	비농업		
	준 비농업	화순군	남, 능주, 도곡, 도암, 동, 동북, 북, 이서, 이양, 청풍, 춘양, 한천
	중간	장성군	남, 동화, 북이, 북일, 북하, 삼계, 서삼, 지원, 황룡
		곡성군	겸, 고달, 목사동, 삼기, 석곡, 오곡, 오산, 옥과, 입죽곡
	준농업	해남군	계곡, 마산, 문애, 북일, 북평*, 산이, 삼산, 송지, 옥천, 현산*,
			화산, 화원, 황산
		장흥군	회진, 부산, 안양, 용산, 유치, 장동, 장평*
	농업		
전라북도	비농업		
	준 비농업		
	중간	완주군	경천, 운주, 고산, 구이, 동상, 비봉, 상관, 소양, 용진, 이서, 화산
	준 농업	익산군	금마, 낭산, 망성, 삼기, 성당, 여산, 오산*, 왕궁, 용동
			용안, 응포, 춘포, 함라, 황동
		김제군	공덕, 공활, 금구, 금산, 만경, 백구, 백산, 봉남, 부량
			성덕, 용지, 죽산, 진봉, 청하, 황산
	농업	고창군	고수, 공음, 대산, 무장, 부안, 상하, 성내, 성송, 신림
			심원, 아산, 해리, 흥덕

2. 자료수집방법

이 연구에서 이용한 농촌중심도시에 관련된 자료는 내무부에서 발간한 「한국도시연감(1991)」에서 수집하였으며 농촌배후지인 면에 관련된 2차적 자료(secondary data)는 내무부에서 발간한 「행정구역 총람(1990)」,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1991)」에서 수집하였다. 면의 생활편익시설에 관련된 자료는 353면을 대상으로 표준화

된 조사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우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그러나 37개면의 조사표는 회수되지 않았다.[30]

3. 적용된 통계방법

농촌중심도시와 배후지의 일반적인 사회생태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백분비, 빈도, 표준편차를 적용하였으며 지역유형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t-test, ANOVA (Analysis of variance)와 LSD검증(Least Signficant Difference)을 적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분석

1. 농촌중심도시의 유형과 성격

일반적으로 농촌중심도시는 인구 2만~10만명의 도시로서 농촌배후지가 있고 그와 부단히 상호작용을 하는 도시를 말한다. 그러나 대도시와 지방도시 가운데에도 인근 군의 군청이 소재하고 있어 농촌중심도시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도시가 있다. 또한 읍 가운데 인구 2만명이 안되는 읍이 많으나 실제로 읍은 농촌지역에서 중심도시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31] 일단 인구규모와 관계없이 농촌중심도시로 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틀 안에서 농촌중심도시를 유형별로 구분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중심도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읍이다. 읍은 137개군에 180개가 있어 1개 군에 평균 1.3개가 소재하고 있다. 대부분의 읍은 실제로 농촌지역에서 중심기능, 거점기능, 결절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인구규모, 산업구조 등에서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읍이 도시적 성격을 더 지니고 있는지, 농촌적인 성격을 더 지니고 있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표 6〉는 인구규모와 농가인구율을 지표로 삼아 읍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이다.

180개 읍 가운데 UN이 설정한 도시기준인 인구 2만 이상인 읍은 42%에 지나지 않으며 58%의 읍은 인구 2만 미만이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우리나라 읍의 승격기준인 농가인구율을 기준으로 볼 때는 전체 읍의 89%가 농가인구율 60% 미만이며, 11%가 60% 이상이었다. 두 개의 기준을 복합하여 적용하면 우리나라 180개 읍 가운데 도시적인 성격을 지닌 읍은 41%인 73개로 나타났다. 나머지 읍들은 농촌중심도시의 기능을 하지만 위의 2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는 도시적인 성격보다는 농촌적인 성격을 더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농촌중심도시의 사회생태적 특성 및 하부구조

농촌중심도시의 기능을 하는 지역으로는 군청이 소재한 대도시 및 지방도시, 인구 2~10만의 중소도시, 그리고 읍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대도시와 지방도시는 비록 배후농촌지역의 농촌중심도시기능을 하기는 하지만 그 기능은 도시의 전체적인 기능면에서 매우 미약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중소도시와 읍만을 농촌중심도시로 한정하고 사회생태적 특성 및 하부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1) 中小都市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평균인구는 66,444명이다. 비군청소재 중소도시의 인구가 73,230명으로 군청소재 중심도시의 60,124명보다 훨씬 많았다. 면적은 비군청소재 중소도시가 평균 91.2km²로 군청소재 중소도시의 평균 면적의 1.5배에 이른다. 인구밀도는 비군청소재 중소도시(1,309명)가 군청소재 중심도시(1,141명)보다 약간 높았다. 농가인구율을 보면 군청소재 중소도시는 평균 20.1%로 비군청소재 중소도시의 8.8%보다 매우 높았다. 따라서 중소도시 가운데에서도 군청이 소재한 중소도시가 보다 농업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농촌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이 활발하다고 추리할 수 있다.

하부구조통계를 통해 군청소재 중소도시와 비군청소재 중소도시의 생활환경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비군청소재 중소도시의 생활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추리할 수 있다. 비군청소재 중소도시는 도로율, 주택보급율, 상수도보급율에서 군청소재 중소도시보다 양호한 상태를 나타냈으며 지역개발재원의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정자립도도 높았다.

〈표 5〉 농촌중심도시의 유형별 구분

유 형		농촌중심도시명	빈도(개)
대도시 및 지방도시 (인구10만이상)	군청소재 직할시	대구직할시	1
	군청소재 도청소재지	춘천시, 청주시, 전주시	3
	군청소재 지방도시	의정부시, 원주시, 강릉시, 충주시, 제천시, 군산시, 여수시, 안동시, 포항시, 경주시, 진주지, 울산시, 김해시, 마산시	14
인구 5~10만의 중소도시[32]	군청소재 중소도시	평택시, 미금시, 오산시, 삼척시, 공주시, 대천시, 서산시, 정주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김천시,	18
	비군청소재 중소도시	영주시, 상주시, 점촌시, 경산시, 영천시, 밀양시 송탄시, 동두천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온양시, 여천시, 동광양시, 삼천포시, 충무시, 장승포시	11
인구 2만 이상의 읍	군청소재 읍	여주읍, 금촌읍, 원당읍, 광주읍, 포천읍, 이천읍, 용인읍, 안성읍, 김포읍, 강화읍, 홍천읍, 영월읍, 옥천읍, 영동읍, 금산읍, 조치원읍, 논산읍, 부여읍, 홍성읍, 예산읍, 태안읍, 당진읍, 부안읍, 담양읍, 광양읍, 화순읍, 장흥읍, 강진읍, 해남읍, 영광읍, 완동읍, 의성읍, 왜관읍, 예천읍, 창녕읍, 양산읍, 신현읍, 고성읍, 거창읍	39
	군청소재 읍	진접읍, 회천읍, 와부읍, 팽성읍, 태안읍,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신도읍, 일산읍, 벽제읍, 지도읍, 화전읍, 장호원읍, 부발읍, 기흥읍, 고한읍, 주문진읍, 도계읍, 증평읍, 강경읍, 연무읍, 장항읍, 성환읍, 도양읍, 벌교읍, 홍해읍, 오천읍, 안강읍, 하양읍, 기장읍, 진영읍,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대정읍, 남원읍	37
인구 2만 이하의 읍	군청소재지 읍	연천읍, 전곡읍, 가평읍, 양평읍, 횡성읍, 평창읍, 정선읍, 갈말읍, 화천읍, 양구읍, 인제읍, 간성읍, 양양읍, 보은읍, 진천읍, 괴산읍, 음성읍, 단양읍, 서천읍, 청양읍, 성거읍, 진안읍, 무주읍, 장수읍, 임실읍, 순창읍, 고창읍, 함열읍, 곡성읍, 구례읍, 승주읍, 고흥읍, 부성읍, 영암읍, 무안읍, 함평읍, 장성읍, 진도읍, 군위읍, 청송읍, 영양읍, 영덕읍, 화양읍, 고령읍, 성주읍, 선산읍, 봉화읍, 울진읍, 울릉읍, 의령읍, 가야읍, 사천읍, 남해읍, 하동읍, 산청읍, 함양읍, 합천읍	57
	비군청소재 읍	상동읍, 사북읍, 신동읍, 철원읍, 김화읍, 동송읍, 거진읍, 원덕읍, 금왕읍, 매포읍, 광천읍, 삽교읍 안면읍, 합덕읍, 염치읍, 삼례읍, 봉동읍, 신태인읍, 옥구읍, 돌산읍, 관산읍, 대덕읍, 일로읍, 백수읍, 홍농읍, 금일읍, 노화읍, 지도읍, 풍산읍, 구룡포읍, 연일읍, 감포읍, 건천읍, 외동읍, 금호읍, 청도읍, 평해읍, 남지읍, 삼랑진읍, 하남읍, 장안읍, 조천읍, 성산읍, 함창읍, 문경읍, 가은읍, 풍기읍	47

〈표 6〉 읍의 성격분석

구분	농가인구율 60% 미만	농가인구율 60% 이상	계
인구2만 미만	88(48.9)	16(8.9)	104(57.8)
인구2만 이상	73(40.6)	3(1.7)	76(42.2)
계	161(89.4)	19(10.6)	180(100.0)

〈표 7〉 중소도시 사회생태적 특성 및 하부구조

구 분		전체		군청소재 중심도시		비군청소재 중심도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회생태적특성	인구(명)	66,444	14,237	60,124	17,599	73,230	13,292
	면적	72.7	49.5	61.4	40.1	91.2	52.2
	인구밀도(명/km²)	1,205	745	1,141	420	1,309	1,111
	농가인구율(%)	15.8	13.1	20.1	14.5	8.8	5.5
하부구조	도로율(%)	7.97	5.89	6.67	5.24	10.09	6.52
	도로포장율(%)	86.4	13.8	87.3	12.2	84.9	16.5
	주택보급율(%)	74.0	8.4	71.4	6.9	78.1	9.4
	상수도보급율(%)	78.8	12.3	75.7	11.6	83.9	12.2
	하수도보급율(%)	43.9	13.4	44.9	15.1	42.1	10.3
	쓰레기 처리율(%)	98.3	4.1	100.0	0.0	95.6	5.9
	재정자립도(%)	49.5	14.9	46.9	11.0	53.8	19.5

2) 邑

우리나라 180개 읍의 전체적인 사회생태적 특성 및 하부구조의 특성은 〈표 8〉에 나타나 있다. 읍의 평균인구는 20,034명이며 평균가구수는 5,266호이다. 표준편차는 각각 10,031, 3,305로 지역간 편차가 심한 편이다. 평균 농가인구는 5,803명이며 평균농가인구율은 34.3%로 나타났다. 읍의 평균면적은 68.6km²이며 인구밀도는 473명이었다.

읍의 하수도 보급율과 상수도 보급율은 50%에도 미달하여 읍이 불량한 위생환경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쓰레기 수거율과 주택보급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도로율은 7.74%로 인구 5~10만의 중소도시와 비슷한 수준이며 도로포장율은 75.9%로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

읍의 인구규모별 분포는 〈표 9〉과 같이 다양하나 전체 읍가운데 58%가 읍 인구기준인 2만명에 미달한다. 인구 1만명에도 못미치는 소규모 읍은 전체 12%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읍(62%)은 10,000~25,0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읍의 인구가 비교적 적은 이유는 물론 인구규모에 관계없이 군청소재지 면과 접적지역의 면을 읍으로 승격시킨 것에도 있지만 공업화 과정에서 읍의 인구도 많이 이동하여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구 2만 미만의 비군청소재 읍 47개 가운데 41개의 읍은 승격 당시 인구 2만을 초과하였다.

〈표 8〉 읍의 주요 사회생태적 특성과 하부구조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	인구(명)	20,034	10,031
회	가구(호)	5,266	3,305
생	농가인구(명)	5,803	2,649
태	농가가구(호)	1,487	670
적	농가인구율(%)	34.3	18.1
특	면적(km^2)	68.6	48.7
성	인구밀도(명/km^2)	473	562
	하수도 보급율(%)	41.7	21.7
하	상수도 보급율(%)	48.3	28.2
부	쓰레기 수거율(%)	96.6	8.1
구	도로율(%)	7.74	8.27
조	도로포장율(%)	75.9	26.7
	주택보급율(%)	88.3	60.7

〈표 9〉 읍의 인구규모별 분포

인구규모	빈도(개)	비율(%)
10,000명 미만	21	11.7
10,000명 이상~15,000명 미만	50	27.8
15,000명 이상~20,000명 미만	33	18.3
20,000명 이상~25,000명 미만	29	16.1
25,000명 이상~30,000명 미만	11	6.1
30,000명 이상~35,000명 미만	24	13.3
35,000명 이상	12	6.7
총 계	180	100.0

읍의 농가인구율별 분포는 〈표 10〉과 같다. 읍의 승격기준인 농가인구율 60%를 넘는 읍은 전체의 11%이었다. 한편 시 승격기준인 농가인구율 40% 미만의 읍이 전체의 2/3 수준인 66%에 이르고 있다.

군청이 소재하고 있는 읍과 그렇지 않은 읍의 사회생태적 특성과 하부구조를 비교한 결과가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인구와 면적은 두 집단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인구밀도는 군청소재 읍들이 538명으로 비군청소재 읍들의 401명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그러나 농가인구와 농가인구율에 있어서는 비군청소재 읍들이 군청소재 읍들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비군청소재 읍들이 군청소재 읍들보다 더욱 농촌적인 성격을 지닌 농촌중심도시임을 나타낸다.

하부구조를 보면 모든 면에서 군청소재 읍이 비군청소재 읍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하수도 보급율과 상수도 보급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군청소재 읍의 생활환경이 비군청소재 읍보다 양호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군지역에서도 중심지인 군청소재지 위주의 개발을 하여 왔음을 시사한다.

〈표 10〉 읍의 농가인구율별 분포

농가인구비율	빈도(개)	비율(%)
10% 미만	12	6.7
10% 이상~20% 미만	30	16.7
20% 이상~30% 미만	39	21.7
30% 이상~40% 미만	38	21.1
40% 이상~50% 미만	25	13.9
50% 이상~60% 미만	17	9.4
60% 이상~70% 미만	13	7.2
70% 이상	6	3.3
총 계	180	100.0

〈표 11〉 군청소재 읍과 비군청소재 읍의 비교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t 값
사회생태적특성	인구 (명)	군청소재 읍	20,555	9,275	0.74
		비군청소재 읍	19,438	10,699	
	면적 (km^2)	군청소재 읍	66.7	54.0	−0.57
		비군청소재 읍	70.9	41.9	
	인구밀도 (명/km^2)	군청소재 읍	538	475	1.63
		비군청소재 읍	401	336	
	농가인구 (명)	군청소재 읍	5,212	1,737	−3.29**
		비군청소재 읍	6,479	3,288	
	농가인구율 (%)	군청소재 읍	29.8	13.5	−3.64**
		비군청소재 읍	39.4	21.2	
	하수도보급율 (%)	군청소재 읍	48.5	18.0	4.80**
		비군청소재 음	33.8	22.4	
하부구조	상수도보급율 (%)	군청소재 읍	57.1	24.0	4.70**
		비군청소재 읍	38.4	29.5	
	쓰레기보급율 (%)	군청소재 읍	97.2	8.1	0.92
		비군청소재 읍	96.0	8.1	
	도로율 (%)	군청소재 읍	8.02	8.77	0.48
		비군청소재 읍	7.42	7.71	
	도로인구율 (%)	군청소재 읍	77.5	28.1	0.86
		비군청소재 읍	74.1	25.0	
	주택보급율 (%)	군청소재 읍	89.0	12.3	0.17
		비군청소재 읍	87.4	13.2	

3. 배후농촌지역인 면의 사회생태적 특성과 생활편익시설

1) 面의 社會生態的 特性

면의 사회생태적 특성은 〈표 12〉에 요약, 정리 되어 있다. 우리나라 농촌개발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단위인 면의 인구는 평균 5,879명이며 표준편차는 3,119로 인구의 편포가 심함을 알 수 있다.

〈표 12〉 면의 사회생태적 특성

사회생태적 특성	평 균	표준편차
인구(명)	5879.4	3119.2
가구(호)	1554.1	749.8
농가인구(명)	3843.2	1538.0
농가인구비율(명/km²)	70.6	31.5
인구밀도(명/km²)	123.4	91.5
가구당 인구(명/호)	3.8	
면적(km²)	63.2	46.9
자연부락(개)	23.5	8.9
자연부락당 인구(명)	255.6	204.2
자연부락당 가구(호)	67.6	34.7
행정리(개)	11.1	4.1
행정리당 인구(명)	542.2	412.1
행정리당 가구(호)	140.0	109.1
행정리당 자연부락(개)	2.1	1.4
면소재지－군청의 거리(km)	17.1	10.8

이를 토대로 〈표 13〉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사대상 면 가운데 약 1/3이 4,000～6,000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4,000명 미만의 인구를 가진 소규모의 면은 전체의 30%에 이른다. 인구 10,000명 이상의 면은 8%에 불과하며 읍으로 승격할 수 있는 20,000명 이상의 면은 1%에 불과하다.

〈표 13〉 인구 규모별 면의 분포

인 구(명)	빈 도(개)	비 율(%)
2000 미만	9	2.5
2000 이상～ 4000 미만	93	26.5
4000 이상～ 6000 미만	114	32.3
6000 이상～ 8000 미만	75	21.2
8000 이상～10000 미만	33	9.3
10000 이상～15000 미만	24	6.8
15000 이상～20000 미만	2	0.6
20000 이상	3	0.8
총 계	353	100.0

조사대상 면의 평균 가구수는 1,554호이다. 이처럼 면은 인구와 가구수가 적기 때문에 면지역에 입지하여 존속할 수 있는 생활편익시설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면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개발잠재력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면지역의 가구당 인구는 3.8명으로 전국평균과 비슷하다.

조사대상 면의 평균면적은 63.2km²이다. 표준편차가 47로 나타나 면의 면적은 차이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표 14〉에서 보면 대부분의 면(63%)은 면적이 20~60km²이나 100km² 이상 되는 면도 13%에 이르고 있다.

〈표 14〉 면적별 면의 분포

인 구(명)	빈 도(개)	비 율(%)
20.0 미만	7	2.0
20.0 이상~ 40.0 미만	108	30.6
40.0 이상~ 60.0 미만	113	32.0
60.0 이상~ 80.0 미만	53	15.0
80.0 이상~100.0 미만	27	7.6
100.0 이상~150.0 미만	31	8.8
150.0 이상~200.0 미만	4	1.1
200.0 이상	10	2.8
총 계	353	99.9

조사대상 면지역의 평균 농가인구는 3,843호이며 평균 농가인구 비율은 71%이다. 〈표 15〉에는 농가인구 비율에 따른 면의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농가인구 비율이 60%를 넘는 순수한 농촌지역의 성격을 지니는 면이 전체의 81%를 상회하며 19%의 면은 비농가인구가 40%를 넘어 산업구조상 도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면의 km²당 인구밀도는 129명으로 전국평균 438에 비해 매우 낮아 쾌적한 정주환경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표준편차가 92로 나타나 면지역의 인구밀도도 편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면의 소재지에서 농촌중심도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군청소재지까지의 평균거리는 17km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농촌의 정주생활권이 반경 16km[33,34]가 된다는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우리나라 취락 가운데 지역공동체(community)의 이념형적 특성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 자연부락은 1개면에 평균 24개가 있다. 16~25개의 자연부락에 있는 면이 전체의 절반에 이르며 30개 이상이 있는 면도 20%에 이른다. 하나의 자연부락은 평균 68개의 가구에 256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1개 면에 행정리는 평균 11개가 있으며 따라서 1개 행정리에는 평균 2.1개의 자연부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개 행정리에는 평균 140호의 가구에 542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과정에서 농촌지역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회생태적인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을 비농업지대, 준비농업지대, 중간지대, 준농업지대, 농업지대로 나누어 몇가지 사회생태적 특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농촌지역의 지대별로 인구규모의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가 〈표 17〉에 제시되어 있다. 비농업지대에 속한 면의 평균인구는 7,9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농업지대, 준농업지대, 준비농업지대, 중간지대 순이었다. ANOVA 분석결과 1%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집단간에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LSD검증을 한 결과 비농업지대와 준비농업지대, 중간지대, 준농업지대간에, 중간지대와 준비농업지대, 준농업지대, 농업지대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표 15〉 농가인구비율별 면의 분포

농가인구비율(%)	빈 도(개)	비 율(%)
10 미만	0	0
10 이상~20 미만	4	1.1
20 이상~30 미만	10	2.8
30 이상~40 미만	7	2.0
40 이상~50 미만	19	5.4
50 이상~60 미만	26	7.4
60 이상~70 미만	70	19.8
70 이상~80 미만	112	31.7
80 이상~90 미만	103	29.2
90 이상	2	0.6
총 계	353	100.0

〈표 18〉는 농촌지역의 지대별로 인구밀도의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이다. 비농업지대에 속한 면들의 평균 인구밀도는 17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준농업지대, 농업지대, 준비농업지대의 순이었다. 중간지대는 93명으로 다른 지대보다 매우 낮았다. ANOVA 분석결과 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LSD검증을 한 결과 비농업지대에 속한 면들과 나머지 다른 지대에 속한 면들간에 인구밀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중간지대와 준농업지대, 농업지대간에도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19〉은 농촌지역의 지대별로 자연부락수의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이다. 준농업지대에 속한 면의 평균 자연부락수는 26.6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농업지대, 준비농업지대, 중간지대 순으로 나타났다. 비농업지대는 18.9개로 다른 지대보다 낮게 나타났다. ANOVA 분석결과 1%의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집단간에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LSD검증을 한 결과 비농업지대와 준비농업지대, 중간농업지대, 준농업지대, 농업지대간에 유의한 차가 있었으며, 준비농업지대와 준농업지대사이에, 그리고 중간농업지대와 준농업지대 사이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7〉 농촌지역의 지대와 인구간의 변량분석 및 LSD검증 결과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LSD검증					
					집단	1	2	3	4	5
비농업	43	7951.6	4526.9	10.6*	1		*	*	*	*
준비농업	68	5998.1	2813.1		2			*		
중간	106	4605.4	1999.9		3					
준농업	97	6050.7	3174.3		4			*		
농업	39	6423.9	2688.1		5			*		
총계	353	6018.18	4036.16							

**:p<.01

〈표 18〉 농촌지역의 지대와 인구밀도간의 변량분석 및 LSD 검증결과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LSD검증					
					집단	1	2	3	4	5
비농업	43	179.0	168.4	8.1**	1		*	*	*	*
준비농업	68	117.1	81.2		2					
중간	106	92.7	51.5		3				*	*
준농업	97	135.4	82.6		4					
농업	39	127.4	58.4		5					
총계	353	123.4	91.5							

**:p<.01

〈표 19〉 농촌지역의 지대와 자연부락수간의 변량분석 및 LSD 검증결과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LSD검증					
					집단	1	2	3	4	5
비농업	43	18.9	6.5	6.6*	1					
준비농업	68	23.0	6.0		2	*				
중간	106	22.7	8.8		3	*				
준농업	97	26.7	10.4		4	*	*	*		
농업	39	24.1	9.7		5	*				
총계	353	23.5	8.9							

*:p<.01

〈표 20〉은 농촌지역의 지대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이다. 비농업지대에 속한 면의 면적이 평균 69.3km²으로 가장 넓었으며, 준농업지대와 농업지대가 평균 61km²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농촌지역의 지대와 면적간의 변량분석 및 LSD 검증결과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비농업	43	69.33	49.73	0.30
준비농업	68	63.70	42.10	
중간	106	62.79	45.01	
준농업	97	61.00	54.64	
농업	39	61.11	36.23	
총 계	353	63.17	46.90	

〈표 21〉은 농촌지역의 지대에 따른 면소재지까지의 거리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이다. 비농업지대에 속한 면들의 면소재지까지의 거리는 평균 19.0km로 가장 멀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준비농업지대, 중간지대, 준농업

지대로 나타났다. 농업지대는 14km로 가장 낮았다. ANOVA의 분석결과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LSD검증을 한 결과 비농업지대와 농업지대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21〉 농촌지역의 지대와 면소재지까지의 거리간의 변량분석 및 LSD 검증결과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LSD검증					
					집단	1	2	3	4	5
비농업	43	19.1	13.1	1.05	1					
준비농업	68	17.6	9.7		2					
중간	106	17.1	11.3		3					
준농업	97	17.0	11.0		4					
농업	39	14.2	6.9		5	*				
총계	353	17.1	10.8							

4. 면의 생활편익시설

각종 생활편익시설의 질과 양에 관계없이 보유유무만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여기에서의 비율은 조사대상 316개 면에 대한 백분비이다. 예를 들면, 유치원이 면내 어디에라도 있는 면은 316개 면 가운데 244개로 77%에 이른다. 면소재지에 유치원이 있는 면은 207개로 66%, 면지역에서 면소재지를 제외한 배후지역에 유치원이 있는 면은 163개로 전체의 52%에 이른다.

교육시설을 보면 의무교육기관인 국민학교는 거의 모든 면에 입지하고 있으며 중학교가 있는 면은 조사대상 가운데 74%에 이른다. 면소재지에 중학교가 있는 면은 전체의 1/2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고등학교가 있는 면은 27%에 지나지 않아 농촌의 교육환경이 열악함을 나타내고 있다. 많은 농촌청소년들이 고등학교에 다니려면 인근의 면이나 농촌중심도시로 통학하거나 아예 이촌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농촌주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과중할 수 밖에 없다.

의료시설을 보면 정부기관인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대부분의 면에 입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1차 민간진료기관인 병·의원이나 한의원이 있는 면은 전체의 23%에 지나지 않아 농촌지역의 의료환경이 열악함을 나타내고 있다. 약국이 있는 면도 전체의 67%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면내 배후지에 약국이 있는 면은 23%에 지나지 않는다.

산업시설을 살펴보면 정미소는 거의 모든 면에 입지하고 있으며, 주유소, 농기계 수리센타도 대부분이 면에 입지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농·축·수산물 창고가 있는 면은 55%에 지나지 않아 농산물의 저장과 유통에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이는 적정한 양의 농산물 출하를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의 제약조건임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공장이 있는 면은 66%로 농촌주민들의 농외취업기회가 그리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면소재지(34%)보다 배후지역(54%)에 공장이 있는 면이 더욱 많았다.

유통시설을 보면 농촌의 전통적인 5일장과 상설시장의 기능이 미약해지고 슈퍼·연쇄점이 가장 기본적인 수요를 제공하는 시설로 보편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전제품상, 의류상, 양장·양복점, 서점·문구점, 세탁소 등 기본적인 생활편익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면은 50%내외로 나타나 농촌의 일상적인 생활의 불편을 시사한다. 따라서 많은 농촌주민들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물건을 구입하려해도 농촌중심도시로 가야하므로 시간과 경비의 손실을 입고 있다. 농촌의 금융기관으로는 농.축.수산업 협동조합이 있다. 거의 모든 면에 협동조합이 있어 신용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농촌주민들의 금융과 관련된 일상활동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 금고의 보급은 크게 신장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교통시설을 보면 면소재지에 직행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이 전체의 52%에 지나지 않아 면지역의 농촌주민들이 인근도시로 가려면 불편을 겪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면내에 택시영업소가 있는 면도 전체의 53%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기타 편익시설 가운데 면지역에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시설로는 종교시설(96%)과 이발소·미용실(93%)을 들 수 있다. 공중목욕탕이 있는 면은 전체의 30%에도 미달하여 농촌의 위생환경이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체육시설도 농촌지역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V. 요약 및 결론

지난 30여년간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지역은 상대적인 저개발을 하여 왔으며 최근 도·농간의 불균형을 개선하여 농촌도 바람직한 인간정주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농촌정주생활권 단위의 농촌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사회생태적인 특성과 생활편익시설에 관해 조사,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지역의 정주체계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나 보편적으로는 농촌중심도시와 배후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농촌중심도시에는 인구 5~10만의 중소도시와 읍이 있으며 배후지역으로는 면지역을 들 수 있다.

(2) 농촌중심도시의 기능을 하는 중소도시의 평균인구는 66,444명이며 평균농가인구율은 16%이다. 중소도시를 군청소재지와 비군청소재지로 나누어 보면 비군청소재 중소도시가 인구, 면적, 인구밀도면에서 높았다. 그러나 농가인구율은 군청소재 중소도시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군청소재 중소도시가 비군정소재 중소도시보다 농업과의 유기적 관계가 더욱 긴밀하고 따라서 농촌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이 더욱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3) 군청소재 중소도시는 비군청소재 중소도시보다 생활환경이 양호하며 지역개발재원의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정자립도도 높았다. 즉, 군청소재 중소도시는 농촌중심도시로서의 개발이 비교적 잘 되고 있고 개발잠재력도 더 높다.

(4) 농촌중심도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읍으로 1개 군에 평균 1.3개의 읍이 있다. 읍의 평균인구는 20,034명, 평균가구수는 5,266호이나 지역간에 편차가 심하다. 많은 읍들이 인구 2만명에 미달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읍인구의 이농이 심했기 때문이다.

(5) 읍은 실제로 농촌지역의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인구규모와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만 살펴보면 약 60%의 읍이 도시적 성격보다는 농촌지역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읍의 평균 농가인구율은 34%이다.

(6) 읍의 주택보급율과 쓰레기 수거율은 비교적 높았으나 상하수도시설과 도로포장율은 불량하여 읍의 하부구조개발이 비교적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7) 군청소재 읍과 비군청소재 읍을 비교하여 보면 농가인구와 농가인구율은 비군청소재 읍들이 군청소재 읍보다 매우 높아 비군청소재 읍이 더욱 농촌적인 성격을 지닌 농촌중심도시로 나타났다. 또한 비군청소재 읍들의 하부구조가 더욱 낙후되어 있어 우리나라 군지역에서도 중심지인 군청소재지 위주의 개발을 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8) 우리나라 농촌의 배후지역인 면의 평균인구는 5,879명이며 평균면적은 63.2km^{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소규모의 인구와 면적을 지닌 면이 하나의 농촌개발권역으로 개발잠재력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9) 면의 평균 농가인구는 3,843명이며 평균 농가인구비율은 71%이다. 19%의 면은 비농가인구가 40%를 넘는 공업화한 지역이다.

(10) 1개 면에 행정리는 평균 11개, 자연부락은 평균 24개가 있으며 하나의 자연부락은 평균 68호에 256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11) 면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회생태적 환경이 다르다. 비농업지대의 면들은 인구와 인구밀도가 높았으며 면적도 가장 넓었다. 그러나 자연부락수는 적어 취락이 거대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농촌지역의 생활편익시설을 살펴보면 고등학교의 부족으로 인한 교육환경의 낙후, 병·의원시설 등 보건환경의 낙후, 농수산물 저장시설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전통적인 5일장이 줄어들고 슈퍼·연쇄점이 그 기능을 대체하여 농촌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수요를 적절

〈표 22〉 면의 편익시설 보유현황

편익시설		면내 보유		면 소재지		배후지역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교육시설	1. 유아(치)원	244	77.2	207	65.5	163	51.6
	2. 국민학교	314	99.4	267	84.5	286	90.5
	3. 중학교	234	74.1	161	50.9	81	25.6
	4. 고등학교	86	27.2	62	19.6	26	8.2
	5. 전문/대학(교)	5	1.6	2	0.6	3	0.9
	6. 사설학원	102	32.3	93	29.4	25	7.9
의료시설	7. 보건지소	295	93.4	280	88.6	17	5.4
	8. 보건진료소	278	88.0	36	11.4	253	80.1
	9. 의원/병원	74	23.4	71	22.5	5	1.6
	10. 한의원	73	23.1	54	17.1	21	6.6
	11. 종합병원	1	0.3	1	0.3	0	0.0
	12. 약국	213	67.4	191	60.4	74	23.4
산업시설	13. 농기계수리센타	275	87.0	252	79.7	144	45.6
	14. 비료·종묘·농약상	234	74.1	221	69.9	52	16.5
	15. 농축수산물창고	174	55.1	150	47.5	134	42.4
	16. 정미소	308	97.5	264	83.5	269	85.1
	17. 주유소	278	88.0	213	67.4	187	59.2
	18. 공장	209	66.1	108	34.2	171	54.1
유통시설	19. 5일장	126	39.9	111	35.1	20	6.3
	20. 상설시장	20	6.3	17	5.4	5	1.6
	21. 슈퍼·연쇄점	298	94.3	286	90.5	128	40.5
	22. 식육점	286	90.5	270	85.4	128	40.5
	23. 가구점	76	24.1	73	23.1	6	1.9
	24. 건축자재상	138	43.7	128	40.5	28	8.9
	25. 가전제품상	166	52.5	155	49.1	18	5.7
	26. 의류상	134	42.4	123	38.9	18	5.7
	27. 양장·양복점	145	45.9	135	42.7	144	45.6
	28. 서점·문구점	170	53.8	158	50.0	51	16.1
	29. 세탁소	155	49.1	141	44.6	25	7.9
	30. 장의사	73	23.1	65	20.6	9	2.8
금융기관	31. 농·축·수산업협동조합	306	96.8	294	93.0	56	17.7
	32. 신용협동조합	51	16.1	42	13.3	12	3.8
	33. 새마을 금고	82	25.9	61	19.3	30	9.5
교통시설	34. 기차역	36	11.4	28	8.9	15	4.7
	35. 직행버스정류장	182	57.6	164	51.9	51	16.1
	36. 택시영업소	167	52.8	157	49.7	21	66.8
기타편익시설	37. 면민회관	138	43.7	129	40.8	12	3.8
	38. 극장·공연장	5	1.6	4	1.3	2	0.6
	39. 공설운동장	9	2.8	5	1.6	4	1.3
	40. 예식장	55	17.4	52	16.5	3	0.9
	41. 공중목욕탕	91	28.8	72	22.8	26	8.2
	42. 이발소·미용실	294	93.0	278	88.0	162	51.3
	43. 숙박업소	132	41.8	115	36.4	36	11.4
	44. 종교시설	302	95.6	272	86.1	255	80.7

* 비율은 조사대상 316개 면에 대한 백분비임.

히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가전제품상, 의류상, 서점, 문구점, 세탁소, 목욕탕 등 기본적인 생활편익시설이 부족한 실정이고 교통시설과 문화·체육시설도 매우 불량하여 농촌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농촌지역 개발의 주요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국토공간의 균형개발과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소도시 개발전략을 수립할 때 농촌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이 활발한 군청소재 중소도시의 개발에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2) 배후 농촌지역의 중심도시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읍의 인구유지 및 성장을 위한 인구유인시책 및 하부구조와 생활환경의 개선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농촌개발행정의 기본적인 행정구역인 군 지역개발에 있어서 군청소재 읍과 비군청소재 읍간의 균형개발을 위해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4) 면은 자족적인 정주생활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그 규모가 취약하므로 군 규모의 농촌정주생활권개발로 정책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5) 배후농촌지역인 면을 인간정주의 공간으로 유지,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 보건위생 시설, 농산물 저장시설, 문화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편익시설의 적정배치와 유치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6) 농촌중심도시와 배후지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내부의 교통시설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이 요청된다.

인용 문헌

1) 정지웅 외, 「농촌지역사회개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 1984:219-222.
2) 한국농업의 장래를 연구하는 모임, 「한국 농업 이 길로 가야 한다」, 비봉출판사, 1992:22-42.
3) 홍경희, 「촌락지리학」, 박영사, 1985:22-31.
4) 정지웅, 「농촌사회구조론」, 한국방송통신대학, 1984; 2-5.
5) Sanders I.T, 「Rural Society」,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77:147-150.
6) Dewey, Richard, "The rural-urban continuum: real but relatively unimporta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66.
7) 홍동식, 「농촌사회학의 이해」, 법문사, 1988;19 (Sorokin & Zimmerman, 1929:13-58), 재인용.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제 3의 물결을 타는 日本의 새로운 농업과 농촌」, 1987:11.
9)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7조(개정 1991.7.15 대통령령 제 13427호).
10) 내부무에서 발간하는 「도시연감」에는 읍이 포함되어 있다.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인구의 전망과 대책」, 1983.
12) 그러나 농촌인구의 감소로 1990년 현재 전체 읍의 57.2%가 인구 20,000명에 미달하나 67.2%의 읍은 비농가인구가 60%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읍이 도시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농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보다 세밀한 연구가 요청된다.
13) 정철모, "농촌정주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농촌중심지 개발방향", 「농촌경제」 제10권 제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7:17.
14) 농촌개발연구회,「농촌개발론」, 형설출판사, 1983: 386.
15) 최양부, 정철모, 「농촌지역의 정주체계와 중심지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39.
16) 농촌개발연구회, 전게서, p.413.
17) ESCAP, 「Guidelines for rural Center Planning」, 1979:105-107.
18) 오세훈,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UR농산물협상 이후의 한국농업의 진로」, 1991:98.
19) 김태용, 「지역개발에 있어서 하위정주공간체계의 분석 및 설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87.
20) 홍동식 외, 「농촌사회학」 법문사, 1983:55.
21) 홍동식 외, 「농촌사회학」 법문사, 1983:55.
22) 상게서, p.56, 재인용.
23) Duncan, Otis and Leo Schnore, "Cultural, Behavioral, and Ecological perspective in the

study of social Organiz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959;132-146.

24) Micklin, Michael, 「Population, Environment and Social Organization:Current Lssues in Human Ecology」, Hinsdale:The dryden press, 1973.

25) 홍동식 외, 전게서, p.58,재인용.

26) 상게서, p.58, 재인용.

27) Perez.L, "The Human Ecology of Rueal Areas:An Appraisal of a Field of Study with Suggestions for a Synthesis", Rural socioloay, 44(Fall), 1979:584-691.

28) 심재웅, "농촌지역의 사회생태학적 분석" 「농촌경제」 제4권 제2호, 1981:127-138.

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지역성장전략수립을 위한 거시적 연구」, 1989:36-55.

30) 조사표가 회수되지 않은 면은 〈표 4〉의 *를 표시한 면이다.

31) 인구 2만 이하의 104개 읍 가운데 군청소재 읍이 57개로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47개의 읍 가운데 41개의 읍이 승격 당시에는 인구가 2만이 넘었으나 최근의 농촌인구감 소로 인구가 2만명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32) 인구 5~10만의 도시 가운데 경기도의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는 수도권 연담도시내의 도시이므로 제외되었다. 삼척시, 영천시, 점촌시, 장승포시는 시승격 당시에는 인구 5만명이 넘었으나 인구감소로 1991년 현재의 인구는 5만명에 미달한다.

33) 내무부, 「지방정주 생활권의 설정 및 개발에 관한 연구」. 1981:14-15.

34) 농촌개발연구회 편, 「농촌개발론」, 형설출판사, 1990:364-365, 재인용(최양부, "농촌 발전과 농촌개혁", 대한국토계획학회 발표논문, 1983 :10)

참고 문헌

1. 高永復, 「現代社會學」, 法文社, 1987.
2. 金東一 외, 「한국농촌주민의 삶의 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3. 金洙郁, "농촌사회 구조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22권 2호, 한국농업교육학회, 1990.
4. 金洙郁 외, "2000년대를 향한 농촌개발전략의 모색", 「농자원개발론집」 제16집, 건국대 농자원개발연구소, 1991.
5. 金洙郁 외역, 「지역분석의 이론과 실제」, 범론사, 1988
6. 金泰鏞, "지역개발에 있어서 하위정주공간체계의 분석 및 설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7. 農村開發研究會 編, 「農村開發論」, 螢雪出版社, 1990.
8. 沈載雄, "農村地域의 社會生態學的 分析" 「農村經濟」, 第4卷 第2號, 1981. 6
9. 안태환 역, 제시버나드 저 「지역사회학」, 博英社, 1989.
10. 윤덕중, 「최신사회학」, 螢雪出版社, 1987.
11. 李茂根, 金洙郁, "전환기의 한국농촌사회·교육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한국농업과학협회 심포지움 발표논문, 1991.
12. 鄭址雄, 「農村社會構造論」, 한국방송통신대학, 1984.
13. 地域計劃研究會 편역 「변증법적 지역개발론」, 명보문화사, 1988.
14. 崔敏浩 외, 「綜合開發論」, 서울대출판부, 1989.
15. 崔洋夫 외, 「마을종합개발의 계획적 접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83, 1984.
16. 崔洋夫 외, 「농촌지역의 정주체계와 중심지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84, 1984.
17. 崔洋夫 외, 「산업사회의 농촌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7.
18. 한국농업의 장래를 연구하는 모임, 「한국농업 이길로 가야 한다」, 비봉출판사, 1991.
19.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농촌인구의 전망과 대책」, 1983.
20. 韓國農村經濟研究院, 「제3의 물결을 타는 日本의 새로운 農村과 農業」, 海外農業資料 40, 1987.
21. 洪慶姬, 「村落地理學」, 法文社, 1985.
22. 洪東植, 「農村社會學의 理解」, 法文社, 1989.
23. 洪東植 外, 「農村社會學」, 法文社, 1983.
24. 黃明燦, 「地域開發論」, 法文社, 1989.
25. Duncan, Otis and Leo Schnore, "Cultural, Behavioral, and ecological perspective in the

study of social organiz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5, 1959.

26. ESCAP, 「Guidelines for Rural center Planning」, 1979.
27. Frisbie, W. Parker and Dudley L. Poston. Jr., "Components of Sustenance Organization and Nonmetropolitan Polulation Change:A Human Ecological Investig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0(December), 1975.
28. Micklin, Michael, 「Population, Environment and Social Organization:Current Issues in Human Ecology」, Hinsdale:The Dryden Press, 1973.
29. Munson, Byron E., "Structural Analysis of the Community," 「Rural Sociology」, 33(December), 1968.
30. Murdock, Steve and Willis A. Sutton Jr., "The New Ecology and Community Theory:Similarities, Difference, and Convergenies," 「Rural Sociology」, 39(Fall), 1974.
31. Murdock, Steve, "The Potential Role of the Ecological Framework in Impact Analysis," 「Rural Sociology」, 44(Fall), 1974.
32. Perez, L, "The Human Ecology of Rural Areas:An Appraisal of a Field of Study with Suggestions for a synthesis," 「Rural Sociology」, 44(Fall), 1979.
33. Sanders, I. T, 「Rural Society」,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77.
34. Sly, Davis F., "Migration and the Ecologicol Complex,"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7 (October), 1972.
35. Sly, Davis F. and Jeff Tayman, "Ecological Approach to Migration 「Americian Sociological Review」, 42(October), 1977.